

□ 러시아 소비동향

< 러시아 유제품 판매량(소비량) >

단위: 톤

구분	2010		2011		2012	
	판매량	변화율*	판매량	변화율	판매량	변화율
Processed liquid milk	241,766.85	6.19	4,241,766.85	6.20	4,504,608.78	4.75
Cream	88,648.06	7.81	95,503.03	7.73	100,885.30	5.64
Yoghurt	755,137.82	8.90	828,526.54	9.72	886,604.13	7.01
Butter	335,822.89	2.34	343,981.78	2.43	350,150.40	1.79
Cheese	1,096,513.29	12.51	1,226,450.86	11.85	1,322,302.79	7.82

주: * 전년대비 증감률

출처: United Nations, BMI(2013.2.3)

○ 러시아의 우유, 산유, 크림, 치즈, 아이스크림 등의 유제품 소비는 매우 높은 편

- 소비자 트렌드가 건강식품 분야로 변화하면서 기능성 요거트 시장은 특히 구매파워를 가지고 있는 소비자 계층 사이에 떠오르고 있는 분야이며 지속적인 성장을 보일 전망

- 2012-2014년의 기능성 요거트 음료는 연평균성장률 11%, 떠먹는 기능성 요거트는 연평균성장률이 12%에 달할 것으로 예측

- 전통적으로 러시아인들은 외국 브랜드보다는 러시아산 아이스크림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나 러시아 업체가 사용하는 재료나 냉동장비는 열악함

- 웰빙,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심 급증으로 기능성 제품군이 많은 유제품, 음료 등의 소비가 증가

○ BMI는 러시아에서, 2012년 유제품 시장의 공급이 원활했던 만큼, 2013년에는 유제품 가격이 안정되고 소비가 약간 증가할 것으로 전망,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

- 러시아 내 커피에 대한 관심이 증가, 상호보완적인 역할의 우유 소비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2007년 미국 체인의 스타벅스의 첫 매장 오픈, 2008년 현지 레스토랑 그룹인 Rosinter이 첫 매장을 여는 등 프리미엄 커피 산업이 꾸준히 성장하는 분야로서 취급되면서, 국내 커피체인망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추세

- 증가하는 가처분소득, 감소하는 인구수가 장기적으로 유제품 소비를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

- 2017년까지 치즈의 소비량은 2012년 하반기 수준보다 27.4% 정도 증가한 약 98만 톤 정도 도달할 것으로 전망. 생산량이 치솟는 치즈에 대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수입으로 부족한 수요를 채우게 될 것으로 전망

- 버터 수요량 역시 2017년까지 37만 톤 정도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 타 신흥국가들에서는 인구가 상승함에 따라 소비량이 증가하는 추세, 하지만 러시아에서는 반대되는 현상으로 감소하는 인구수가 1인당 버터소비량을 늘리게 될 것으로 전망

- 치즈와 버터의 수요는 유제품 가공을 위해 사용되는 우유를 제외한 음용 우유의 수요보다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